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21.(일) 11:00,  
(지면) 2024. 4. 22.(월) 조간

배포 2024. 4. 19.(금) 오후

##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 항만·여객선 등 해양수산시설 630개소 대상 점검, 일반 국민·전문가 등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정부·공공기관·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4. 22.~6. 21.)’ 기간 동안 항만·여항시설, 여객 터미널, 여객선 등 해양수산시설 630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공무원 외에 일반 국민과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점검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드론, 특수 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장소도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위촉한 국민안전감독관\*도 연안여객선 점검에 참여한다. 국민안전감독관은 항해사, 해상교통관제사, 산업안전분야 전문 자격증 보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해·남해·동해 권역으로 나뉘어 국민의 관점에서 여객선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 올해는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

해양수산부는 이 밖에도 해양박물관, 국제여객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국민 참여형 비상대피 훈련, 선박 안전설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는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 실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규모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일상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위험요소들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김승찬 (044-200-5857)
<박물관>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044-200-5223)
<자원관>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책임자	과 장	이정로 (044-200-5670)
		담당자	사무관	장성은 (044-200-5671)
<국가어항>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전형준 (044-200-5657)
<국제여객터미널>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지현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이광호 (044-200-5718)
<연안여객선>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유윤진 (044-200-5738)
<위험물하역시설>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44-200-5790)
		담당자	사무관	최지명 (044-200-5791)
<국제여객선>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윤광상 (044-200-5818)
<등대문화공간>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전기준 (044-200-5874)
<항만시설>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전충남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이기열 (044-200-595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